



웃는 사회로 이끌자

‘오카시이’ - 일본공영 방송이 우리 진도 앞바다의 참사를 분석하는 특집 프로에서 한 참석자가 진지하게 ‘웃기네’라는 의미의 이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사고가 일어난 것 자체는 물론 구조 과정의 어리숙함, 관계자들의 무신경, 상황 파악을 도울 과학기술자들의 존재감 없음 등으로 실망하고 분노하던 참에 들은 ‘오카시이’는 정말 참기 어려운 모멸감을 주는 것이었다.

화끈거리고 분함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되돌아보고,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생각할 때의 속쓰림과 자책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문제를 어찌구무이고 기가 막히다는 투로 ‘웃기네’로 요약했다는 데에, 정말 화끈 거리고 분통이 터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아무리 비정규직 이라지만 선장이 먼저 탈출하다니, 만재한 트럭을 대충 로프로 묶었다니, 작동하는 구명정이 46개 중 한 개에 불과했다니, ‘웃기네’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사고가 이렇게 영성하게 일어나고 진행되었다면 그 후진국을 ‘웃긴다’고 했을 것이리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이룬 나라, 반세기 만에 식민지에서 벗어나 ODA를 제공하는 DAC 회원이 된 나라, 많은 개도국이 롤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나라라고 우리는 뼈저렸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상태, 무슨 수단지 쓰지 않으면 최악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달려온 덕분이었다.

개발연대의 모습

-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에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추풍령 위령비에 경부고속도 건설과정에 희생된 77명의 이름이 있다. 그것도 7월 7일 개통에 맞춰 77명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 누가 외국책을 허가없이 복사하는데 시비를 걸 것인가. 책값도 비싸져니와 주문하면 6개월씩 걸리는데, 우리 처지에 그냥



글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hahzoong@khu.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NSF 초청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복사해서 쓰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 예비군 훈련에 가면 상의 단추는 두 개만 채우고 침을 여기저기 마구 뺨어 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교육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잠을 자야 한다. 민방위 훈련할 때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내 일을 하면 된다. 건물에서 나가 지정된 장소로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할 때,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것들이 어려울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을 아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채널로 이야기가 전해지게 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러 종류의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민족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살아온 해방 후의 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는 열등감을 떨치고 자포자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다. 좌고 우면하지 않고 목표 달성만을 위해 전력을 다했으나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만큼 퇴색되고 허물을 안고 있는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살아 온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와 같은 구호를 넘어서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남을 배려하는 세상을 열어가게 해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과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어디까지이냐이다. 그 과정에서 인성이 얼마나 각박하게 변해 가느냐를 따져야 한다. 개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금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의 장래는 없다. 내가 가져야 할 능력을 갖추고 거기에 부합되는 역할을 인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남과 같이 살아가는 지혜와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해야 한다

‘국가 개조’는 쉽지 않다. 특히 외형을 고쳐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면 아직 순진한 사람이다.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사람이 해야 한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와 행동이 선진국형으로 돼야 한다. 엄청난 사고를 겪으면서 사회 모든 분야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분위기는 형성되었다. 만일이 일을 지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여겨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대로 덮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앞날은 없다.

비용을 부담하자

생략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따져 봐야 한다. 장치를 하나 더 붙여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안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운영할 때 효율성 차원에서 감축한 인력, 여유 없는 근무 스케줄, 정차 시간 단축 등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따져 봐야 한다.

보건의료, 환경, 복지, 치안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한가 따져 봐야 한다.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 두면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연구비(그 소스가 어디냐에 상관없이)를 타고 사용하는 데에서 실제와 다른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재원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주체는 그 연구수행자가 과제를 통해 얻어낼 성과와 보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수행자는 자신이 최선을 다할 때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과정도 합리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야 한다.

사실, 위의 사항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지난날 우리는 그들 중 일부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고 ‘빨리 빨리’ ‘효율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든 ‘고속도로’는 그만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강에 놓여있는 다리들이 최대한으로 튼튼하게 짓기보다, 많이 짓는 게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를 더해야 한다. 그 비용을 다시 따져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 기간을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

웃는 사회로 이끌어야

‘웃기네’의 대상이 되는 수모를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한다. 비용을 부담하고, 기본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운영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무슨 일이 터질 때 그것을 제대로 파악·판단하고, 책임있는 견해를 낼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계가 돼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이 주도하는 선진국으로 가야 하고, 이성과 논리가 인정받으면서 ‘웃는’ 사회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